

평화와 번영의 한·미 동맹관계를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
방미외교

2003. 5. 11 ~ 17



노무현 대통령 방미외교

발행처 · 국정홍보처 www.allim.go.kr | 발행인 · 조영동
편집제작 ·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www.ktv.go.kr/news.go.kr | 편집인 · 고석만
발행일 · 2003. 6. 9 | 인쇄 · 삼성문화인쇄(주)

국정홍보처



평화와 번영의 한·미 동맹관계를 위하여



한·미 동맹

차 례

- 대화·신뢰·우정
사진으로 보는 방미외교 2
- 귀국 보고 14
- 한·미 정상회담 18
- 세일즈 외교 및 주요 인사 접견 22
- 재미 동포와 함께 32
- 언론 화견 34

대화·신뢰·우정

사진으로 보는 방미외교



“한·미 동맹관계 확인”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14, 왼쪽)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위·아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합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 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핵 원천 제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위)

양국 정상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경제협력 확대, 안전한 동반자 관계 지향 등 4개항의 공동성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





“국익 창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

노무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 서부지역 경제인 간담회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증진을 당부하고 있다. (5.15, 왼쪽 위)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 재계회의
오찬에 참석, 미 경제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5.13, 왼쪽 아래)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
한국 기업의 상장 문호 확대를 요청했다. (5.12, 위)



“한·미 제반 협력문제의 긴밀한 조율”

노무현 대통령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만찬 연설에서 “한국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5.12, 왼쪽)

딕 체니 부통령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 양국 현안·협력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5.14, 위)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5.14, 아래)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지지”

유엔을 방문한 노 대통령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아난 총장은 한국의 평화번영정책이
유엔과 기초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5.12, 위)

9·11 테러참사 현장을 방문,
블룸버그 뉴욕 시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5.12, 아래)

워싱턴의 링컨기념관을 찾아
'화해·통합정치'를 다짐했다. (5.13, 오른쪽)





“방미 성과의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 확산”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행사로 열린 샌프란시스코 동포 간담회에서 교민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5.15, 위)

노 대통령은 귀국보고를 통해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실천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5.17, 왼쪽)

귀국 보고

북핵 문제의 평화해결 원칙 합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첫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 발전 계기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6박 7일의 일정에 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는 이번 미국 방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 양국이 당면한, 한국이 당면한 한·미 관계,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한·미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완전한 동맹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 하기보다는 한·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이번 방미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 의구심 완전 해소

이번에 저와 부시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원칙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 5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공고하고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며,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 이전은 한반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군사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 역지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더욱 완벽한 국방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인사들은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이라크에 파병을 해 준 데에 대해서 거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후 복구 및 재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국민 시선을 모으기 위한 노력인데 그런 게 실제로 정상회담에서는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 뉴욕행 기내간담회에서(5. 11)

건물의 재료 하나하나가 화해와 통합을 상징하는 조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 미국도 분열과 갈등이 심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링컨기념관을 방문해서(5. 13)

대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한·미 양국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오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동일한 대북 정책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에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에게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부시 대통령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고립의 길에서 벗어나 핵을 포기하고 국제협력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때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북핵 문제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 일본·중국·러시아와도 공동보조

앞으로 일본·중국·러시아를 방문해서 이들의 지지와 협조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보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우려를 거두어냄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평채 가산금리도 95bp로 하락하여 2001년 12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경제개혁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상'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노사관계는 원칙과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미국,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에 대한 지지 표명

이번에 미국 정부의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그리고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는데 한결같이 우리의 경제개혁 추진과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투자가들과 기업인들도 한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의 금융계 지도자들, 상공회의소 주요 기업인들, 그리고 서부지역의 첨단산업 경영인들은 모두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해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미국 금융계와 첨단산업을 둘러보면서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거듭 절감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장을 마련하고 내·외국인의 차별 없이 세계를 향해 '열린 시장'을 만들고 기술력과 창의력을 갖춘 기업이 성공하는 한국 경제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재미 동포들의 미국 이민 100주년이 되는 해만큼 방문지별로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데 대하여 감동받았습니다. 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주고 유대관계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격려를 드렸습니다.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 확산에 주력

한·미 관계에 대한 일부의 의구심이나 오해는 이제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분명한 경제개혁 의지를 미국 정부와 경제계에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투자유치와 통상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인 결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되고 또 협의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데 각별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 대통령 링컨과 만나다

- 기념관 찾아 '화해·통합정치' 다짐 -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과 에이브러햄 링컨이 만났다.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평상복 차림으로 워싱턴의 링컨기념관을 찾았다. 평소 링컨을 사숙(私淑)해온 노 대통령은 입구 계단에 있는 높이 19피트, 무게 175톤의 링컨상(像) 앞에서 잠시 묵상했다. 노 대통령은 "기념관이 1922년에야 완공됐다고 하는데 통합을 상징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가슴에 와닿는다"며 "건물 하나하나가 화해와 통합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어느 사회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란 책까지 낸 노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에게서 '화해와 통합의 리더십'을 배웠다. 남북 전쟁 전후 처리과정에서 통합의 정치를 봤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링컨을 '낮은 사람이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든 정치가'로 평가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념관 오른쪽 벽면의 취임사를 가리키며 "링컨의 두번째 취임사 연설문이 가장 감명 깊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책에서 "두번째 취임 연설문에서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느님을 섬기면서 제각기 상대방을 응징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어느 쪽의 기도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라는 구절을 읽고 링컨이 새롭게 다가왔다"고 적었다. 행사를 준비한 의전 관계자는 '노 대통령과 링컨과의 만남'이 개인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도록 수행인원을 최소로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 제51호 / 2003년 5월 14일(수)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 “북핵 평화해결” 합의

첫 정상외교 큰 성과 - '한·미 동맹 진전'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부시 미국 대통령과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강화 △북한 핵 불용 및 평화적 해결 △경제·통상협력 확대 △미 2사단 후방배치 신중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은 백악관에서 오후 6시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정상을 포함한 소인수(小人數) 회담과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가졌다. 이후 두 정상은 회담결과를 공동 발표했고, 오후 8시까지는 2층 올드 패밀리 다이닝룸에서 부시 대통령 주최의 만찬 회기가 이어졌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내내 대단히 친근한 태도로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고 환영의 뜻을 여러 차례 표했다. 또 이례적으로 부시 대통령이 직접 노무현 대통령을 안내해서 링컨의 침실 등을 보여 주면서 설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의 신뢰를 한 차원 더 높이는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소인수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 확대 만찬회의에서 이라크의 전후복구 참여문제와 한·미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미 정상 공동회견

한·미 정상은 회담을 마친 후 만찬장으로 이동하면서 로즈 가든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함께 사진촬영을 한 뒤 기자들에게 회담결과를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나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한국의 대통령인 노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노 대통령의 방문을 지금까지 기대해 왔다”고 운을 떼고 “그동안 전화통화를 통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고, 이번에 또 직접 만나 논의했다”면서 “이 회담을 통해 노 대통령이 아주 대화하기 쉬운 상대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시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느꼈다”고 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다.



“중요한 문제를 개인적 우정을 갖고 해결”

부시 대통령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개인적 우정을 갖고 해결한다는 데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다”고 신뢰를 확인했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또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저는 노 대통령에게 ‘우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보장한다(assure)’고 말했다”고 소개하고, “우리는 북한과 관련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 진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하고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경제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계속 협력해 나가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나는 한국 경제에 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활력이 지속될 수 있다

는 것을 믿으며, 노 대통령과 함께 공고한 한·미 관계 강화를 거듭 지속하기 위한 공동협력을 해나갈 것을 무척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한국을 떠날 때는 걱정과 희망을 함께 가졌으나 오늘 저는 부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뒤 걱정은 벗고 희망만 갖고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며 회담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감이 넘치는 자세로 “한·미 동맹관계가 지난 50년 동안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50년간, 아니 그 이상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했다”고 한·미 동맹 관계를 적극 부각시켰다.

또한 “많은 국가 정책적 문제에도 합의를 이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과 제가 더욱 신뢰하게 됐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을 떠날 때는 걱정과 희망을 함께 가졌으나 오늘 저는 부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뒤 걱정은 벗고 희망만 갖고 한국에 돌아갈 것입니다.
 (노 대통령의 방한요청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방한해야겠습니다.
 - 한·미 정상 대담에서(5. 14)

대화



한·미 정상 공동성명(전문)

공동의 가치, 원칙 및 전략

2003년 5월 14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2003년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임에 유의하면서 양 정상은 양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기로 다짐하였다.



한·미 동맹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환영하면서 한·미 동맹에 기여한 이들, 특히 미군이 주도하는 한국 지역사회 및 한반도에서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하여 헌신해 온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 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양 정상은 주한 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이 보다 큰 능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주둔으로 전환되는 동안 주한미군이 취할 적절한 대비태세에 대하여 노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

였다. 양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 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 안보상의 도전에 맞서 한·미 양국간 협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한국이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이라크전에서 전후 인도적 지원 및 재건을 위한 여타 노력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노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항구적 자유 작전'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에 주목하면서 대 테러 전쟁의 진전 및 협력 상황을 검토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래 한·미 관계에 대하여 토론하고 양국 정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전문가 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북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재처리 및 핵무기 보유에 관한 언급과 이러한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사태 악화 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4. 23~25일간 베이징 3차 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다자외교를 통한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이 필수적이며,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도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의 최대 공여국 임에 주목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 전개와 연계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동 지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할 필요에 대해 유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과감한 접근방안 및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의 개요를 설명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남북 화해과정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 채널이 북한에게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간 긴밀한 공조 유지와 한·미·일 3국간 협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경제 관계

양 정상은 양국간, 지역내, 그리고 전 세계적인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 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투자·성장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속적인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무역·금융·투자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노 대통령의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하였다. 두 지도자는 무역개방·투자·투명성의 제고가 동북

아 경제중심 개념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에 동의하고, 이러한 노력에 있어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협의를 통해 양자간 통상현안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기존의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완전한 동반자 관계 지향

부시 대통령은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한국민이 실현한 민주주의, 평화 및 번영의 이상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을 표하였다. 노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준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다.

노 대통령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국제열핵융합로(ITER) 프로젝트 및 이 달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반부패 포럼에 있어서,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범죄를 퇴치하려는 여타 다른 노력에 있어서 한·미간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루어진 빈번한 통화와 워싱턴에서의 심도있는 협의가 양 정상간 개인 차원에서의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신뢰와 존경에 힘입어 향후 북한 핵문제 및 여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고, 부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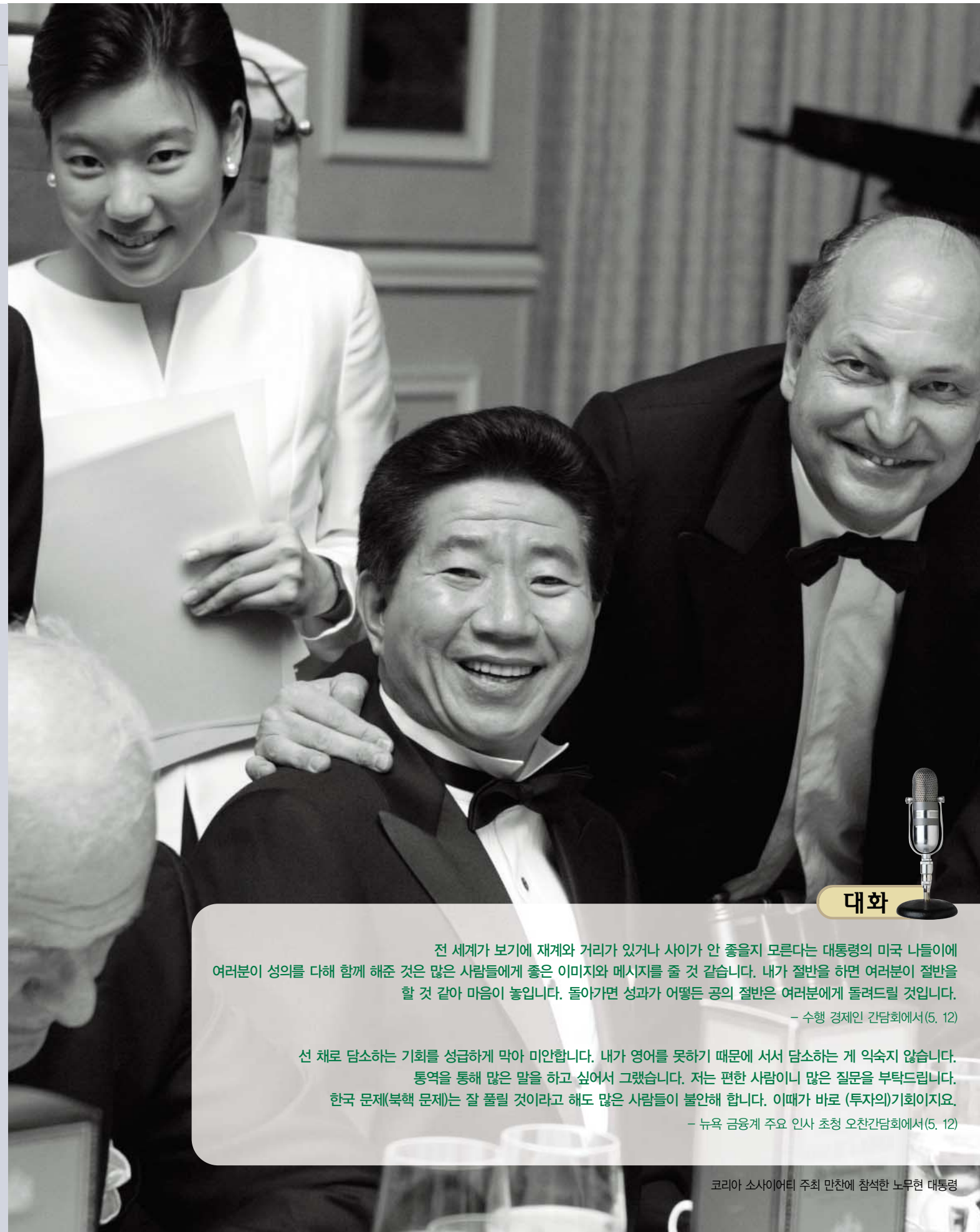
세일즈 외교 및 주요 인사 접견

수행 경제인 간담회

미국 방문 첫번째 세일즈 외교는 수행 경제인들과의 만찬이었다.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만찬에서 경제인들은 한국 경제상황과 난제들을 설명했고, 노 대통령은 꼼꼼히 메모하며 들은 뒤 세세히 답을 했다. 마지막에는 “도와주십시오” 하고 정중한 부탁을 했다.

만찬이 끝난 뒤 구본무 회장은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 많은 경제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참여정부의 방침과 비전을 미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대화

전 세계가 보기에 재계와 거리가 있거나 사이가 안 좋을지 모른다는 대통령의 미국 내들이에 여러분이 성의를 다해 함께 해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메시지를 줄 것 같습니다. 내가 절반을 하면 여러분이 절반을 할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돌아가면 성과가 어떻든 공의 절반은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 수행 경제인 간담회에서(5. 12)

선 채로 담소하는 기회를 성급하게 막아 미안합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서서 담소하는 게 익숙지 않습니다. 통역을 통해 많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편한 사람이니 많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문제(북핵 문제)는 잘 풀릴 것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합니다. 이때가 바로 (투자)기회이지요.

- 뉴욕 금융계 주요 인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5. 12)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월가 방문 및 뉴욕 금융인 간담회

방미 이틀째인 12일(이하 현지시각) 본격 세일즈 외교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은 월가(Wall街)를 방문하고, 뉴욕 금융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문호 확대를 요청

-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노 대통령은 딕 그라스 회장과 환담을 나눈 뒤 1분 전부터 모든 객장의 중개인과 수행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벨포디움에서 뉴욕 증시의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눌렀다. 객장에 모인 모두가 한국 대통령이 증시개장을 알린다는 데 관심을 갖고 박수로 환호했다. 뒤이어 각 객장을 둘러보던 중 우리나라 국민은행 주식이 오르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딕 그라스 회장에게 한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문호 확대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증권거래소 임원 간담회에서도 “미국인들이 투자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충고를 적극 받아들이고 개혁도 부단히 지속하겠다”며 “국내외적으로 내가 재계에 거부감을 가진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재계 인사 30여명이 방미를 돕는 것



▲ 수행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은 정부와 재계의 굳건한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안도하고 투자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발전전략 소개 - 뉴욕 금융계 주요 인사 초청 오찬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에 이어 로버트 루빈 시티그룹 회장(전 재무장관)을 비롯한 뉴욕 금융계 주요 인사 10여명에게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비전을 자세히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경제정책의 일관성에 관심을 표명한 골드만삭스 호메츠 회장의 질문에 “국민의 정부 시절 4대 부문 개혁정책을 이어나가되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덧붙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집단 소송제 도입 △회계감독규정 보완 △재벌의 금융지배 억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함께 12일 저녁 뉴욕 피에르 호텔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가 주최한 연례만찬에 참석, 연설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지금 ‘양적인 성장’의 단계를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참여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과 타협’ ‘분권과 자율’의 국정 원리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후 6·25전쟁 당시 미 해병대 대대장으로서 참전했던 레이먼드 데이비스 예비역 해병대장에게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선정한 올해의 ‘벤플리트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前 주한 미국 대사)을 비롯한 회원들과 토머스 폴리 전 미 하원

의장, 로버트 루빈 시티그룹 회장, 아서 라이언 푸르덴셜 회장, 피터 피터슨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 등 미국의 정·관계와 경제계,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 700여명이 참석했다.

미 상공회의소 및 한·미 재계회의 공동주최 오찬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낮 워싱턴 미 상공회의소 본부에서 미 상공회의소와 한·미 재계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찬에 참석, 연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뢰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은 물론 국가간 관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신뢰의 첫 번째 요건은 한국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정부는 경제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경제 전 분야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토머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 모리스 그린버그 한·미 재계회의 미국측 회장(AIG 회장)과 조석래 한국측 회장(효성그룹 회장) 등 양국 경제계 인사 및 상공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미 상공회의소 회장과의 일문일답

▶한국은 새로운 경제체제의 하나로 전 세계 기업에 가능한 개방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 어떠한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가기에 희망하시는지요?

대통령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두게 되면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많은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소개하면, 우리의 IT 역량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IT기술은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성공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부품·소재산업, 애니메이션 등 무한하나 이 정도만 소개하고, 덧붙인다면 생산기술 이외의 분야에서 비즈니스센터, 금융 중심지로서의

오찬 때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고들 하던데, 그거 봤으니까 됐죠.

-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에서 경제 관련 일정에 집중한 하루 중 가장 좋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냐고 묻자(5. 12)



대화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은 공통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구조나 법 때문에 투자자들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우려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아직도 특정 분야에 약간의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차별이 없다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차별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등을 만나서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요?

대통령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칠레 외에는 없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한국에는 새로운 산업구조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농업 구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토를 떠나지 못하는 농민들이 남아 있어 농산물 문제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의 농림부 장관도 와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고령인 농민 문제는 사회 정책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소수의 농민이 경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미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우드로 윌슨 센터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공동주최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저녁 워싱턴 레이건빌딩 파빌리온룸에서 '우드로 윌슨 센터(WWIC)'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주최한 만찬간담회에 참석, 한반도 정세와 북한 핵문제, 한·미 동맹 강화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가 '평화의 공동체' '번영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정부는 그 선결과제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미 양국은 보다 성숙하고 완전한 동맹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CSIS 샘 넌 이사장과 존 햄리 연구소장, 데이비드 메츠너 WWIC 부이사장 등 주최측 대표, 헨리 키신저 및 메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등 저명한 국제문제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노 대통령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미 서부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후에 데이비드 오라일리 세브론 텍사코 회장, 대니얼 라일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회장, 스콧 맥닐리 선 마이크로시스템 회장, 제리 양 야후 설립자 등 미국 서부지역 소재 주요 첨단기술기업 및 금융업체 경영인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시장개척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투자증진을 위해 참석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한·미 동맹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R&D, 특히 IT를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젊은이들이 성취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고급 인력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 마이크로시스템 회장은 “오늘 참석한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한국을 도와 주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했고, 오라일리 텍사코 회장은 “한국의 에너지 사업부문에 상당히 많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현재 가스 부문에 대해서 정부 방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등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실리콘 밸리 인텔사 방문

16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실리콘 밸리를 둘러보고 이 지역의 대표적 첨단기술업체인 인텔(Intel)사를 방문, 크레이그 바렛 회장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크레이그 회장에게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인텔사가 한국에 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결과적으로 한국과 인텔사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100억 달러 규모의 대한투자 유치활동을 벌였다.

인텔은 1971년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한 데



▲ 실리콘 밸리 인텔사 방문



▲ WWIC / CSIS 주최 간담회



▲ 키신저 전 국무장관 접견



▲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



▲ 미 상원 지도부 간담회

이어 80년대부터 286, 386, 486 및 펜티엄 프로세스를 잇따라 출시함으로써 이른바 소형 컴퓨터 혁명을 선도해 왔으며, 세계 45개 국가에서 7만 8천여명을 고용, 2002년에는 매출액 268억 달러(순익 3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인사 접견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헨리 키신저 박사 접견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유엔을 방문해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난 사무총장은 “유엔과 한국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 유엔도 기조를 같이하며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도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베이징 3자 회담은 좋은 시작이고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루이 스트롱 특사를 북한에 보내는 등 “유엔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지속해 나가는 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적인 지원문제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동참할 것이지만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과 미국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미국과도 이 문제를 사전 조율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헨리 키신저 박사를 접견했다. 키신저 박사는 “노 대통령께서 한·미 관계의 중요한 시기에 방문하셨다”면서 “한·미 관계는 아주 중요하고 양국 관계 강화에 이번 방문이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1970년대 초에 키신저 박사께서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끈 여러가지 경험에 비추어서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조언을 해 달라”고 했고, 키신저 박사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상호간에 긴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딕 체니 부통령 등 미 정치 지도자들 접견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에반스 미 상무장관과 쥘릭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접견하고, 통상 등 한·미간 제반 협력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 데니스 헤스터트 의장, 로이 블런트 공화당 원내총무,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미국 하원 및 상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핵문제, 한·미 경제협력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딕 체니 부통령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해 북한 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체니 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재조정은 비단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군사배치를 재조정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스노 재무장관, 린스펠드 국방장관 등 미 고위 각료들을 비롯하여 브라운 샌프란시스코 시장, 윌리엄 풀러 아시아재단 회장과 스칼라피노 교수 등과도 잇따라 면담을 갖고 양국 현안문제 등을 논의했다.



▲ 풀러 아시아재단 회장 접견



행사 참석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지도자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했더니 그레그 회장이 '그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누군지 보러 온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에서(5. 12)

대화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연설

반세기 한·미 동맹관계의 참뜻

한국은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를 겪어 왔고, 지금도 의미있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사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정부입니다.



한국, 새로운 변화 진행중

작년 봄에 처음으로 치러진 대통령 후보 국민경선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12월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마침내 지난 2월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저는 미합중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을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겸손한 정치인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며, 분열을 막고 화해와 통합을 이루어낸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 또한 변호사의 길을 걸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권위주의 정부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한국의 민주화는 상당히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쟁과 분열의 정치는 극복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심각한 과제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고, 또 노력했습니다. 투쟁의 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로,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한·미 동맹 50주년의 깊은 뜻

올해는 미국의 한인사회가 이민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또 한·미 동맹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지금도 감사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최선의 노력으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걸프전과 동티모르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9·11테러' 당시에는 대다수 한국인들이 미국민들과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국제적인 반테러 노력에도 협력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라크에서는 한국의 파병부대가 미군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 정부는 '평화변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도, 국민의 행복도 평화로부터 출발합니다.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또 대화로써 해결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막다른 길이지만, 다른 한쪽은 끝이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북한이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와 국제사회는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나왔습니다. '베이징 3자 대화'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3자 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과 인내를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 경제, '글로벌 스탠더드'를 향해 개혁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밝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물류와 비즈니스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부산항·광양항과 같이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물류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속 통신망과 IT산업을 비롯한 정보화 기반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이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의 두 가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한반도의 평화정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의 모든 분야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범국가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것입니다. 노동분야도 선진화될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국제수준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어느 곳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린 시장을 만들고,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미 상공회의소 및 한·미 재계회의 공동주최 오찬연설

한국, '새로운 기회' 를 창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체질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튼튼해졌습니다. 경제구조도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작년에 6.3%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린 시장

신뢰의 첫번째 요건은, 한국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경제 전 분야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고, 이에 맞게 경제 현실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장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기업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정책'도 투자 확대를 결정짓는 매력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투자를 검토하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노사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한국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변화해 갈 것입니다. 외국인 기업의 노사분규는 이제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 관행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환경도 개선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의 입장에서 투자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외국인의 생활 여건도 고국에 사는 것과 큰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의료와 자녀교육,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지정될 '경제자유구역'은 바로 이러한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브' 로 발돋움

한국은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넓은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과 같은 충분한 물류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화 기반과 IT 역량도 세계 선두권입니다. 무엇보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국은 '동북아의 물류와 생산과 금융의 허브'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데 중추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특히 동북아와 태평양경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국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WWIC)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 간담회 연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 경제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경제 규모가 전 세계의 3분의 1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 있는 한반도에는 아직도 동·서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시아가 '평화의 공동체' '번영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대북 포용정책'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남북한간에 대화와 인적·물적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화해협력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최대한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과의 공조도 긴밀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공생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연설문 요약

美 주요 인사들도 好意 발언

"희망의 새 지도자" 등 노 대통령 리더십 評價

- ▶ **샘 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이사장**(전 상원 외교위원장)은 13일 뉴욕의 만찬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평화와 번영과 희망의 새로운 지도자"라고 소개.
- ▶ **슈워츠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3일 참전용사 및 주한미군 사령관 접견에서 "노 대통령의 겸손함과 솔직함이 (연설을 들은) 청중을 매료시켰다"고 언급.
- ▶ **딕 체니 부통령**은 14일 워싱턴 오찬에서 "노 대통령의 리더십은 급변하는 한반도와 세계 정세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이라고 평가.
- ▶ **부시 대통령**은 14일 한·미 정상회담 첫 발언에서 "우리는 귀한 손님이 올 때 선발대를 보내는데 이번에도 (한국에) 보냈다. 선발대의 단장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우리 아버지다. 한국에 가서 노 대통령을 만나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라고 소개.

며"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이 베이비 부머를 지도자로 선출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도자가 더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 ▶ **짐 레러 미국 공영방송 PBS 앵커**는 15일 노 대통령과의 인터뷰 후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인터뷰해 봤지만 노 대통령은 정말 놀랍고 훌륭하게 대답했다. 솔직하면서 가식이 없는 지도자"라고 술회. ▶ **풀러 아시아재단 회장**과 **스칼라피노 교수**는 15일 샌프란시스코 환담에서 "역대 한국의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역동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 이밖에 이라크 파병에 대해 럼스펠드 국방장관, 에반스 상무장관,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대표, 해스텝트 하원 의장 등이 '깊은 감사'를 표하거나 "정치적 용기가 필요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방문 기간중 뉴욕 동포 간담회, 워싱턴 재미 동포 간담회, 샌프란시스코 동포 간담회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동포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데 대하여 감동 받았다”고 격려하고, 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주었다.

뉴욕 동포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 미국 방문 첫 행사는 11일 아스토리아 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뉴욕 동포 간담회였다.

간담회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입주의 여지없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900여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노 대통령은 연설문 없이 특유의 솔직한 연설을 이어나갔다.

“후보 시절이라면 지지자만 오셨을 텐데...”라고 말해 장내 웃음을 자아낸 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한·미 동맹관계,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역설했다. 또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나 나누게 될 양국간 현안 문제들을 ‘브리핑’ 했다. 재미 동포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재외동포법과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장내에서는 수차례 우레와 같은 박수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동포 간담회

특히 한국의 미래를 얘기하며 “동북아 시대를 국가적 비전으로 내걸고 국내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다”는 대목에서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동포 간담회는 미국 현지의 동포들에게 아직은 ‘낯선’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워싱턴 재미 동포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함께 13일 오후에는 워싱턴 캐피털 힐튼호텔에서 김영근 워싱턴 한인연합회 회장, 이오영 미주한인 총연합회 회장, 강남중 북(北)버지니아 한인회장, 손순희 워싱턴 지역 메릴랜드 한인회장, 김영진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장을 비롯한 재미동포 80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워싱턴 지역에는 약 18만 명의 재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동포 간담회

“와서 대접 좀 받았습시다. 저도 오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여러분은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방미 마지막 행사로 샌프란시스코 교민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부터



▲ 뉴욕 동포 간담회

긴장됩니다. 청와대에서도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늘 하는 긴장입니다.
- 뉴욕 동포 간담회장으로 향하기 직전 “긴장되시나”는 질문에(5, 11)



대화

부시 대통령이 확인했던 얘기라 말만으로는 특별히 새로울 게 없지만 미국과 전국민,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함께 약속하고 발표했다는 데에 그만큼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평화적 해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의 짐을 내려놨습니다”라고 한·미 정상회담의 소회를 밝혔다.

반미 감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촛불시위는 반미가 아니라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관한 것으로, 이를 반미로 단정짓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낡은 시대에 발목잡힌 것”이라고 말하고 “반미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할 말은 하되 성조기를 불태워선 안되고 국가원수를 모독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배석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불러 세워 “진 장관은 아들 때문에 장관자리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에) 대꾸하지 않고 꼭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인식을 바꾸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비유로 재외동포법 입법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아시아 아트 박물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LA 지역에서까지 온 동포들이 노란 손수건을 흔들며 노 대통령 내외를 뜨겁게 환호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브라운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 워싱턴 재미 동포 간담회



“북한은 핵개발을 반드시 포기해야”

- 뉴욕행 기내 기자간담회(5. 11)

▶이번 방미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대통령 한·미 동맹관계, 주한미군 문제, 북한 핵문제 등 중요 문제들에 대해 인식의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원칙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전술적인 선택은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일치하고 공감대를 높이면 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로 쓰거나 기사로 될 때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지만, 만나면 일치감이 확 인됩니다.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핵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완벽하게 목표가 일치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거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상황인식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 이미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정책이 최근 북한 핵 불가에서 수출 차단으로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요?

대통령 그 문제는 미국 정부가 공식 부인했습니다. 기존의 핵 불인정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한반도 안정 뒤에

- 워싱턴 주재 특파원 간담회(5. 14)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과의 이견을 좁힐 방안은?

대통령 3자 회담을 중심으로 한 협상이 아직 진행중입니다. 부시 대통령이나 나나 모든 카드를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변하는 것입니다. 협상을 위해 더 폭넓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때 협상의 입지가 좋아집니다. 부시 대통령과 여러 가정적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주한미군 2사단의 재배치 문제는 어떻게 결론날 것으로 보니까?

대통령 주한미군 재배치는 장기적인 안보전략입니다. 전략이 바뀌면 배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의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대한 심리적 안전판과 정치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한미군이 이동하면 많은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군의 재배치는 한반도 불안이 해소된 뒤에야 이뤄져야 하며, 이런 점을 부시 대통령에게 설득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미국 방문 경제효과 연간 22억~42억 달러

항 목	예상효과(억 달러)	주요 가정 및 추산 방법
국가 홍보 효과	3 ~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미 기간중 6일간 평균 약 5~10분간 미국 언론을 통해 국가 홍보를 한 효과 (총 30~60분 홍보) 미국의 주요 언론기관에 1분의 광고를 내는 데에 드는 총비용을 약 1,000만 달러로 가정하여 추산
해외 차입비용 및 절감 효과	4 ~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에 정국 불안시 외평채 가산금리가 0.3~0.6%p 상승했으므로, 금번 방미로 인한 대외 여건 안정이 외평채 가산금리를 0.3~0.6%p 하락시킨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 외평채 가산금리가 0.35%p 하락할 경우 연간 5억 달러 정도의 해외 차입비용 절감효과를 가정(재정경제부 추정치 이용)
통상마찰 완화의 직접적 효과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닉스 반도체의 상계관세 해소 효과만 가정 상계관세 예비판정으로 인한 하이닉스의 월간 예치금 약 2,300만 달러 방미로 인해 상계관세가 해소되는 경우 '2,300만 달러 12개월'의 수출비용 절감 효과
외국인투자 효과	12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 감소 둔화 효과만을 추산 한·미 관계의 악화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하던 1/4분기 미국의 대한 투자(-71.7%)가 여타 국가의 감소세 수준(-15.6%), 또는 중간 수준(-43.7%)으로 둔화되는 것을 가정
기타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마찰 완화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한 수출 증대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 확대 지정학적 위기감 해소로 인한 관광수입 증대 재외 동포 지위 향상
총 합	22 ~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각의 최저값 합산치 ~ 각각의 최고값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뉴욕행 기내 기자간담회



▶북한의 미사일과 마약 수출을 차단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 위협하고 불법적이며 반인륜적인 물건들을 확산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한국도 적극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와 크게 봐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핵도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불법행위는 포괄적·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북한의 인권·탈북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 한국은 탈북자들을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탈북 유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해방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비밀결사를 조직해 노예들을 탈출시켜 봤지만 큰 틀에서 정치적 문제가 풀리면서 완전 해결되었습니다. 북한을 적극적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려면 포괄적인 해결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부시 대통령과 이른바 코드를 맞추기 위한 구상은?

대통령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느낌입니다. 나에 대해 의혹이나 불안감이 많은 사람도 실제로 만나 대화해 보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믿고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것입니다.

북핵 유연한 대응 필요

- 샌프란시스코 기내 기자 간담회(5. 15)

▶한·미간에 군사 현대화를 무척 강조했는데 무기거래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습니까?

대통령 없습니다. 한국의 국방이 주한미군에 과도하게 의존

하는 것은 개선돼야 할 문제입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무기체계 현대화와 정보능력 향상이 돼야 합니다. 미국의 주장은 전쟁전략 개념의 변화로 군사 숫자나 무기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견해를 같이한 것이 언제 무슨 변화를 준다는 것을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남북 교류협력사업 연계 발표로 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까.

대통령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평화적 해

결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미 중에도 북한은 '비핵 합의'에 대해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자는 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방미활동에 대해 '변했다'는 평가를 놓고 찬반논란이 있는데요?

대통령 관점에 따라 여러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평가들에) 개의치 않습니다. 북한 핵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원칙을 확인함으로써 한반도 불안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합의를 얻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듣기 싫은 소리나 하고 나쁜 소리나 하면 되겠습니까. 일부 의견에 따라 제가 입바른 소리나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면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노 대통령, 부시와의 외교적 동의 모색

- Washington Times 회견, 5. 12

대북 긴장, 평화적 해결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고조되는 대북 긴장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임을 자신과 함께 공개 약속하자고 부시 대통령에게 촉구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정권들에 대한 미국의 '선제행동' 정책으로부터 북한을 제외시키려 할 것이다.

부시와 미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에 의한 대북 군사력 동원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이라크전의 승리로 한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에 의해 '악의 축' 일원으로 지목된 적대적인 스탈린주의 정권이 무력에 의한 '정권교체'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널리 퍼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언제라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자신과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상응하여 자신의 5년 임기 중 한국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될 것임을 미국인들에게 확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미국인들은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일부는 나를 의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방미 기간 중 나에 대한 모든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이 최선의 대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대안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협하고 가혹한 것이어서 포용의 길을 가기로 노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의 회담에서 무기급 플루토늄 재처리에 착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모든 주장은 베이징 협상 도중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의 협상카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사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우리는 좋은 친구”

盧 - 부시 대통령, 신뢰·우의 쌓아



동갑내기인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을 끝낸 뒤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만찬을 통해 인간적인 신뢰와 우의를 쌓았다고 말하는 등 두 정상간의 돈독한 관계를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한국을 떠나면서 걱정과 희망을 함께 가지고 왔는데 이제 걱정은 벗어버리고 희망만 갖고 한국에 가게 됐다"며 "우리는 짧은 시간에 아주 부드럽게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해 부시 대통령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시 대통령과 솔직히 대화했고, 국가적인 문제 이외에 인간적으로 매우 가깝게 됐고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만찬에서는 "처음 만났지만 오랜 친구처럼 느껴진다"며 건배사를 했다.

부시 대통령도 두 정상간 우의를 강조하는 말로 화답했다. 부시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나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한국의 대통령인 노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직접 만나 논의해 보니) 노 대통령이 아주 대화하기 편안한 상대라고 느꼈고, 자신의 의견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하기 쉬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분명한 것은 두 나라가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에 앞서 "빈번한 전화통화와 워싱턴에서의 심도 있는 협의가 양 정상간 개인 차원의 상호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했고, 이러한 상호신뢰와 존경에 힘입어 향후 북한 핵문제 및 여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문구를 공동성명문에 넣기도 했다.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매우 깊은 신뢰와 우호관계로 회담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이 분위기가 앞으로 한·미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제52호 / 2003년 5월 15일(목)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여러분은 한국의 좋은 친구이자 영원한 친구입니다.
- 참전용사 대표 및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접견에서(5. 13)

친구를 움직이는 데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는 방법도 있지만 친구와 호흡을 잘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에 대해(5. 13)

대화



노 대통령, 자신의 이미지 개선 모색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자신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미가 “북한과의 핵 대치국면을 외교로 풀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다짐이 언제라도 바뀔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한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뉴욕 금융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한국내 강한 반미감정이 접전이었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이었다고 폭 넓게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미군의 한국 주둔에 큰 장애가 없다”면서 “미군의 영구 주둔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100여만명의 북한 정규군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3만 7천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느냐는 질문에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정치와 경제개혁을 주장해 왔으며 작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노 대통령은 “합리적인 정치인, 정직하고 투명한 정치인, 그리고 소신을 반드시 관철하는 정치인으로 비쳐지기를 바란다. 나는 미국의 질서가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그동안 평가해 왔다. 따라서 내가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는 것은 미

국의 정치인들 및 미국인들과 서로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언론에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 자신이 유연하게 북한을 다루고, 미국에 편견을 갖고 있으며, 미군의 장기주둔을 줄이기 원할 뿐만 아니라 노조와의 오랜 관계로 인해 반기업적이라는 등의 인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비전투부대 파견 등 미국의 이라크전을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부시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높였다. 그는 또 자신의 경제정책이 한국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경제인 다수가 이번 방미에 포함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노 대통령은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함께 고질적인 기업비리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 회견

- PBS(미국 공영방송), 5. 15, 18:10~18:22

▶어제 회담 직후,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그 말의 의미는 북한이 새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또한 이전에 생산한 핵무기가 있다면, 이를 폐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에 있어 정확히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신지요?

대통령 이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와 그러한 주장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생산했다는 북한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

해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어제 부시 대통령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요?

대통령 최근까지 한·미간에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를 두고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보도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부시 대통령과 나는 이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미간에 긴밀한 협조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점을 이야기하려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국과 중국, 한국, 그리고 관련국들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대통령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정부도 절대불변의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란 주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북한의 태도는 앞으로 변할 수도 있고, 북한이 제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를 개혁하고 개방할 기회를 얻는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책방향을 지지하신다는 의미입니까?

대통령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내 고위 관료 중 부시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고위 관료 중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 오직 북한의 정권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나는 미국내에 그런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

지만,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북한 정권을 교체시키는 방식도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체제를 개혁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현 정권을 교체하는 쪽을 선택할 경우, 한국은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스스로가 개혁,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신념을 부시 대통령에게 피력하셨습니까?

대통령 그렇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통령 우리는 아주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는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으며, 앞서 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에게 행정부내 관료들이 북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접근법을 언급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셨는지요?

대통령 한국은 지난 수백년 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고, 우리는 반세기 전에 전쟁을 겪어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조와 한국인들 자신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번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룩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비참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평화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본 후에 미국과 다음 행보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지녔던 사람들의 다수가 대선 때 나를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내게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설득하고 만나겠습니다.

- WWIC · CSIS 공동주최 만찬간담회에서 반미감정 치유책이 무엇이라는 데이비드 엡사이어 CSIS 하와이 지부장의 질문에 대해(5. 13)

대화



▶앞날을 바라볼 때, 통일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언젠가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 언론 보도문

한국 지도자, 주한미군 당분간 현상유지 원해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12일 북한 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주한미군을 반세기 동안 주둔해 온 비무장지대 바로 남쪽 위치에서 이동시키지 말 것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관계자들이 미국 국방부와 비공식적으로 협의해 온 계획들에 언급,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안전한 방향으로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북한 핵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은 위협이 해소되고 우리 국민과 함께 세계 기업인들이 우리의 안보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될 때 가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자신과 부시 행정부가 북한 대책과 관련, 광범한 기준에 합의했음을 꽤 길게 강조했다며 12일 밤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북한은 두 가지 대안을 앞에 놓고 있다.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방을 할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은 대북 협상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김정일 정부의 붕괴를 겨냥한 응징책으로 북한을 위협하느냐는 문제를 둘러싼 부시 행정부 내 논쟁에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가혹한 경제제재를 고려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더 강한 쪽이 상대적으로 약한 쪽에 대해 다소 신축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미국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은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은 합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전력(前歷)에 대해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그는 말했다.

- 미국 「New York Times」 5월 13일자

노무현 대통령, “북한과는 인내가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의 핵 계획을 포기시킬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인내 속에서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둔 노 대통령은 월 스트리트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화를 통해 모든 노력이 소진될 때까지 강압적인 수단은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고 말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미국을 처음 방문한 노 대통령은 경남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반미데모가 한창이던 작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의 많은 지지자들은 미국의 정책과 미군의 주둔조건들을 맹렬히 반대했다.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하고 미 경제계 지도자들과 만난 뒤 가진 40분간의 회견을 통해 노 대통령은 미군은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북한의 핵 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대화와 유인책을 통해 북한이 핵 야욕을 단념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등 현재 미국이 고려중인 수단들과 같은 외교적 차원을 넘는 노력을 한국이 지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한국인들과 여타 세계는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안다. 만일 미국이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부를 어떠한 조치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휴전 후 50년이 지난 이제 “우리는 큰 성공과 번영을 누리고 있으나 또 다시 전쟁이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Wall Street Journal」 5월 13일자

노 대통령, “미국은 나와 대북한 입장 공유”

노 대통령은 베이징회담이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보여온 노력과 인내를 높이 평가하며 여기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은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핵 계획을 포기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가 평화적 해결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노 대통령은 말했다.

13일 한·미 재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대부분 한국 경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힘찬 회복세를 나타낸 한국 경제는 선진국 가운데 최고인 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방미 임무 가운데는 불안한 국제경제계를 안심시켜 한국이 투자할 수 있는 안정된 곳이라는 점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들어 있다.

- 미국 「Washington Post」 5월 14일자

이례적인 만찬 초대, 국민수준으로 대우

부시 미 행정부는 수뇌진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에 대응, 극진하게 대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미의식이 강하다고 알려진 노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쥐 ‘친미파’로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부시 대통령은 14일 저녁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노 대통령을 맞이해 북한 문제 등을 둘러싸고 회담한 후 만찬을 함께 갖는다. 노 대통령의 방문은 통상적인 실무방문으로, 국민으로서의 ‘공식방문’이 아니다. 알코올류를 입에 대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부시 대통령은 국민대우가 아닌 외국 요인과의 만찬은 멀리해 왔다고 알려져 노 대통령과의 만찬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외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날 낮에는 체니 부대통령이 오찬을 주최하며, 라이스 대통령보좌관(국가안전보장문제 담당)도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 이른바 올스타 캐스트의 환대다.

- 일본 「닛케이신문」 5월 15일자

미국, 북한 핵 ‘용인하지 않을 것’

비록 노 대통령이 한국의 반미 감정을 이용하여 당선됐지만 두 정당은 화목한 회담을 즐긴 게 틀림없었다. 노 대통령이 부시로부터 군사 개입을 하지 않고 북한 핵 딜레마 종식을 모색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얻어냄으로써 노 대통령의 국내 입





“방미, 나는 성공했다고 확신한다”

– 한 수행원의 訪美 6박 7일 ‘보고 느낀대로’

지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

“나는 노 대통령에게 우리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지금 평화적인 해결의 방향으로 잘 진척되고 있다”고 부시는 말했다.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위기 확대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사정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선언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차이가 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모색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 붕괴를 초래하여 한반도 전역을 동요시킬 것이란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

노 대통령은 또 군사 행동 가능성을 일컫는 부시의 ‘모든 옵션’ 계속 검토 주장을 몹시 경계하고 있다.

– 영국 「The Times」 5월 15일자

부시, 북한 문제에 대한 ‘유익한 진전’을 전망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성취하는 데 “유익한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 자리에서 전해진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이 지난 달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의 첫날부터 수렁을 헤매던 이후에 워싱턴에서 나온 가장 긍정적인 신호였다.

노 대통령을 분명히 기쁘게 했을 이들 발언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준 노 대통령에게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평화적 해법”을 찾아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 영국 「Financial Times」 5월 15일자

한·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재천명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마친 후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노 대통령에게 미국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그가 “출발 전 가졌던 모든 우려가 해소되었고, 아울러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바꿀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중국 「신화통신사」 5월 15일자

한·미 정상회담, 북한은 고립을 자각하라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①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하지 않는다 ② 국제협력 하에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계획 포기를 지향한다 ③ 중국의 북·미·중 협의에서의 역할을 환영 ④ 남북협력은 핵문제 진전을 보아가며 실시한다 등을 재확인했다.

모두 한·미·일 결속을 축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틀에서의 해결을 꾀하는 방향이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사이기도 하다. 그런 원칙을 노 정권 하에서 재확인한 의미는 적지 않다. 또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하며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면 추가조치를 검토한다”고 합의한 점도 중요하다.

북한이 앞으로 핵보유나 플루토늄 추출 등으로 가면 한·미·일도 경제제재 등의 수단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회담 직전 주한미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수입이 680억엔에 상당(2001년)하며, 위조달러 지폐나 마약밀수도 세계 유수의 규모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핵 개발을 지금면 등으로부터 봉쇄해 나갈 미국의 생각을 시사한 것이다.

– 일본 「마이니치신문」 5월 16일자

노무현 대통령과 방미 수행단의 미국 일정에서 유일하게 빠진 것이 취침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굴욕외교’라는 비난이 있는 바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하면 “무얼 했기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미 정상외교를 하루 앞둔 14일 밤에 이르러 수행단은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다.

정상회담에 대한 긴장 때문만이 아니었다. 미국 경제인들과의 교류 강화, 한·미 공조 강화, 노 대통령 제대로 알리기 등 많은 과제를 풀기 위해 첫날부터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를 했기 때문이다.

미국 일정을 마친 바로 다음날인 18일 광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에는 반쯤 감긴 눈이 도대체 힘을 받지 못했다. 5·18 기념 행사장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로 노 대통령의 정문 입장이 봉쇄되는 등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 시위는 거칠고 거셴다. ‘굴욕적 사대외교의 전형’이라고 했다.

굴욕적 외교네 저자세 외교네 하는 말들의 이유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원거리에서 보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근거리 관찰의 소회’도 풀어보자면 이렇다.

첫째, 고백하거니와 나는 미국에 가야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어떤 것인지를 절감했다.

노 대통령을 면담한 미국측 인사들은 국제사에 있어 족적을 남긴 과거의 거물들에서부터 현재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경제계 거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몸을 최대한 낮추었고 극존칭 경어를 사용했다.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때에는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것이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실례가 된다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허락을 얻어 하는 그들의 대북관계, 한·미 관계에 대한 조언들은 매우 유용했다.

둘째, 미국측 인사들과의 면담시 오간 ‘덕담’은, 말하자면 저자세(?)의 우위를 가리기가 어려웠다.

미국측 인사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극찬했다. IMF 극복과정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고, 제임스 루빈 전 재무장관은 하버드 대학 총장과 자신이 나누었던 일담을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그런 초고속 경제성장의 원인, 민주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다른 나라들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모든 면담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했다. 특유의 ‘맞고요, 다만...’ 어법 때문에 저자세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중요한 것은 ‘다만’ 뒤에 나오는 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보도되기로는 ‘맞고요’ 측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또 한 가지 방미 중 놀라웠던 것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공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만나는 이들은 노 대통령이 반미주의자이지 않은가, 한국의 젊은층들이 미국을 싫어한다는데 사실인가,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한 노구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젊은 이들은 어떤지 몰라도 한국전을 기억하고 있는 늙은이들은 한국의 반미운동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놓고 ‘저자세 외교’ ‘굴욕적 외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노 대통령을 반미주의자로 알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북핵 문제 해결의 협상자인 미국에게 노 대통령은 가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았을까.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 관해서도 그렇다. 외교와 협상에는 시나리오가 많다. 그 합의문이 나오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과정이다. 합의문은 과정의 결과물이다. 최약에서 최선까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협상을 벌인다. 더 나빴을 수도 있고,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사각의 링에서 상대선수를 넉 다운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한 번 더 때려 주는 동물적 승리감을 느껴야 만족하는 것인지, 협상 테이블을 놓고 양자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거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합의를 해야 옳은 것일까. 같은 합의문을 놓고 미국측에서는 불만이 없었을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의 초강경 매파들에게 그 합의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을까.

이번 방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부시 행정부 사이에 오가는 교감의 강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서로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신뢰하거나 말거나, 저자세이거나 고자세이거나 하는 감정적 문제가 개입될 필요가 없다. 현실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핵 위기이고, 이 위기를 풀 가장 주요한 당사자는 목도하다시피 미국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반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기어서라도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심이 아닐까. *요약

– 제54호 / 2003년 5월 19일(월)





옛날에는 선생님 책만 읽어도 잡혀갈까봐 주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 스칼라피노 교수에게(5. 15)

한국은 연구개발(R&D)과 IT분야가 특히 강합니다.

- 미 서부지역 경제인 간담회에서 매기 윌더로터 마이크로소프트 수석부회장이 한국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묻자(5. 15)



대화

한국에서의 안도감

인권운동가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준비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제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북한 핵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제제재나 군사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수개월 전부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을 떠나면서 걱정과 희망을 함께 갖고 왔으나, 오늘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나

눈 후 (걱정은 벗고) 희망만 갖고 한국에 가게 되었다”며 아주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회가 명확하게 언급된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표현은 서울의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를 향해 북한에 보다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국방력을 강화할 것과 북한에 대한 선(先)지원에 신중할 것을 촉구하는 야당측도 만족시켜 줄 것이다.

-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5월 16일자

노무현 대통령 미국 방문 주요 일정

날 짜	주 요 일 정	날 짜	주 요 일 정
5. 11(일)	- 서울 출발, 뉴욕 도착 - 동포 간담회	5. 14(수)	-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 - 미 의회 지도부 인사들과의 간담회 - 딕 체니 부통령 주최 오찬 - 정상회담 및 조지 W. 부시 대통령 주최 만찬
5. 12(월)	-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방문 - 뉴욕 금융계 주요 인사 초청 오찬간담회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면담 - 월 스트리트저널 기자회견 -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 연설		5. 15(목)
5. 13(화)	- 뉴욕 출발, 워싱턴 도착 - 미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연설 -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 한국전 참전기념비 방문 - 링컨기념관 방문 - 참전용사 대표 및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접견 - 동포 간담회 - 우드로 윌슨 센터(WWIC) 및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 미 학계·연구소 인사들과의 만찬간담회	5. 16(금)	- 수행 기자단과의 조찬 - 솔츠 전 국무장관 접견 - 실리콘 밸리 인텔사 방문 - 샌프란시스코 출발
		5. 17(토)	- 서울 도착

